

# 금호산업, 박삼구 회장 품으로 돌아가나

### 호반건설, 아시아나 채무 부담 등 감안 낮은 가격 제시

금호산업이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오후 금호산업 매각 분임철이 마감된 가운데 단독 응찰한 호반건설은 금융업계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6007억원을 채권단에 제안했다. 이는 채권단이 유찰 시키지만 않으면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이기도 하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채권단의 보유 지분 중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 사실상 이번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호반건설이 제시한 금액에 우선매수청구권만 행사하면 금호산업을 탈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30.08%)인데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아시아나에어포트·아시아나IDT 주식 100%를 보유해 일개 기업이 아닌 금호

아시아나그룹 전체와 다름 없다. 박 회장으로선 그룹의 명운을 걸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박 회장은 그동안 재계 인맥과 지역 인사를 총동원해 본인자금 2000억~30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FI), 전략적 투자자(SI) 등 자금 마련에 나섰다. 그런데 호반건설의 제안 금액이 6007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부담이 적어지게 됐다.

업계에선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 항공 회사채 6500억원과 우발성 채무, 불투명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6007억원을 적정가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국적항공사 운영권을 쥐게 되고 유통·물류·면세점·부동산 사업까지 진출이 달려오기 때문에 인수 전 초기에는 신세계, 롯데, CJ, 애경그룹 등의 인수 가능성이 접져졌지만 모두 인수



전에 참가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그룹 재건에 사활을 거는데 중간에서 가로채 자칫 도의를 저버렸다는 비난 및 지역감정 악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반건설의 단독 응찰에 응찰금액까지 밝혀진 만큼, 남은 것은 채권단의 결정이

다. 채권단은 예상한 금액보다 호반건설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유찰 시키고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가 내린다.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채권단은 5월10일께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묻는다. 박 회장은 1개월 이내 행사 여부를 답변하면 된다. 우선매수권을 청구하게 되면 2개월 내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먼저 내고, 3개월 내에 완납하면 된다.

박 회장은 5226억원 가량을 제시하면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을 감안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5개월 가까이 시간을 벌 수 있고, 이 기간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47.67 (-9.87)
- ▲ 금리 (국고채 3년) 1.83% (+0.04)
- ▼ 코스닥 696.79 (-2.60)
- ▼ 환율 (USD) 1070.00원 (-3.00)

###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연임

김영구(61·세진종합건설 대표·사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이 3년 더 협회를 이끌게 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8일 오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 회장을 대표 회원 만장일치로 임기 3년의 제21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차기 감사로는 공후식 동림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부회장과 운영위원, 윤리위원 등 기타 임원 선출은 회장에 의해 임명됐다.

김 회장은 수락 인사에서 "전국 16개 시·도회와 연계해 최근 입법예고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비롯,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건설업 영업 범위, 부대공사 개념, 종합건설업자 간 하도급 사전 승인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이어 "소규모 복합공사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면 도내 종합건설업체 물량의 80% 이상이 전문으로 넘어간다"며 "국토부 항의전화와 회원 연대서명, 청사 앞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반드시 불합리한 정책을 철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회는 이날 행사에서 광주·전남 4년제 대학 건설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우수 대학생 13명과 회원사 임직원 자녀 11명 등 24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77개업체 입주 희망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부는 28일 광주·전남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용지 26필지 가운데 18필지에 77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사업계획신청서가 접수된 18개 필지에 대한 총 77개 신청업체 순위별 접수결과를 살펴보면 최우선 순위인 대학이 1곳, 1순위인 이전기관 연계업체 등이 3개 업체, 2순위인 유망 중소기업 14개 업체, 3순위인 지구별 유치업체 6개 업체, 4순위인 지식산업센터 등이 53개 업체 등이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부는 광필지 상 테에서는 대규모 기업연구소 등만이 대입 가능했으나 광필지 5개 블록의 대규모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유망 중소기업 등 자금부담 완화 및 다양한 수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활성화 차원에서 56필지로 소필지화했다.

또 조성비가 139만원/3.3㎡ 이하인 감정평가를 통해 공급가격을 128만원/3.3㎡으로 결정하고, 이중 26필지(10만 1000㎡)에 대해 지난 6일 매각공고를 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광주 광산업 유럽 사절단 1100만달러 계약 성과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이달 중순 파견한 광주 광산업 유럽 무역 사절단이 1100만 달러 상당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28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한국광기술원과 글로벌광통신, 에이팩 등 3개 기관·7개기업으로 구성된 광산업 유럽 무역사절단은 지난 4월15일부터 25일까지 덴마크와 독일, 폴란드 등 3개국 32개 기업 45명의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광통신분야 상담액 810만 달러, 계약액 600만 달러, LED 조명 분야 상담액 907만 달러 계약액 500만 달러 등 총 상담액 1717만달러, 계약액 1100만 달러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무역 사절단은 또 독일 고등기술협회

(Verband der Hightech-Industrie) 및 폴란드 전기전자협회(Instytut Elektrotechniki)와 광산업 관련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가별 광산업 관련 유관기관과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성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카타르LED 프로젝트에 이어 세네갈 LED-광통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며 "국내 기업들의 신뢰성 있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나주호 통수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28일 나주 나주호 일대에서 한해의 안전농업과 풍년을 기원하고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 시설물의 정상적 운영을 다짐하는 통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급수를 시작했다. 나주호는 1976년 9월 준공된 이후 나주평야 1만2241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 77.8% '전국 최고'

### KDI '1분기 부동산 분석' 전국 71%로 역대 최고치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올해 1분기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내놓은 '2015년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주택 전세가율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올랐다.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1분기 중 2.3% 올라 전분기(2.1%)에 이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 비율은 71.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광주는 올 1분기 7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세가격은 7780만원이란 뜻이다. 대구(76.1%), 울산(72.1%), 대전(71.0%), 부산(70.0%) 등 다른 광역시도 전세가율 70%대를 넘겼다.

광주의 매매가격은 2014년 1분기보다 4.1% 상승했다. 대구(8.3%)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2.3%의 2배에 육박했다. 전세가격은 전년 1분기보다 3.2% 올랐다. 전국 평균엔 못 미쳤다.

KDI는 낮은 금리와 전세 공급 물량의 감소 등으로 2분기에도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 1분기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심리 개선, 부동산관련 3대 법안의 통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외식업 중 진출' 교육생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국 외식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외식업 중국진출 전략'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5월14일~15일 이틀간 경기도 수원 소재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신설된 이 과정에서는 중국 내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국산 한식 식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에서 확인하거나, 교육운영부(031-400-3527)로 문의. /김대성기자 bigkim@

##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제주,광주,전라 명문골프장)포함

##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4월 입회고객 (100분한정) 특별 사은권 제공

####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 - 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광주지사)

##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텔리스팅)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